자동차

Car

‘라세티 디젤’ GM대우 출시

GM대우차가 준중형 ‘라세티 디젤’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디젤승용차 경쟁에 뛰어들었다.

GM대우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라세티 노치백(일반 세단), 해치백, 왜건 등 ‘라세티 디젤 3총사’를 선보이고 2일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인 라세티 디젤 모델은 배기량 2000cc의 직접

연료분사 방식 터보차저 커먼레일 디젤(TCDi) 엔진을 탑재, 최대 출력 121마력(3800rpm), 최대 토크 28.6kg·m(2000rpm)의 힘을 발휘한다.

라세티 디젤은 신형 스텝게이트 5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리터당 14.9km를 주행하며, 수동변속기의 경우 리터당 18.4km를 달린다. 최대 60리터를 주유할 수 있어 한번 주유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연료가 남는 1천10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볼보-시티 세이프티 시스템

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들이 각종 첨단장치 장착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작은 센서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각종 첨단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운전의 ‘맛’을 높이고 있다.

인피니티-뉴 G35

BMW-나이트 비전 시스템

캐딜락-STS

포드-링컨MKX

볼보-XC90

‘첨단’무장 수입차 고객 유혹

야간에 원적외선 카메라
충·추돌 방지 센서 부착
에어백 작동시간도 단축

◇**충돌 방지는 기본**=볼보자동차는 저속에서 충·추돌 위험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시스템을 개발해 향후 2년 내에 볼보 전 차종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시티 세이프티’는 차량 충돌사고 가운데 75%가 시속 30㎞ 이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됐다. 이 시스템은 앞차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운전자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 속도를 줄여준다. 따라서 졸음운전이나 경미한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으로 꼽힌다.

◇**사고에도 피해는 최소화**=폭스바겐의 ‘페이톤’과 ‘투아렉’에는 조기 충돌 센서가 작동한다. 이는 충돌시 에어백의 작동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충돌의 세기에 따라 2단계의 에어백 작동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형 트럭 밑으로 충돌하는 등 대형사고가 예상될 경우 에어백 작동시간이 빨라져 인사 사고 방지가 가능하다.

또 캐딜락 ‘STS’는 충격 강도에 따라 팽창 정도를 조절하는 에어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야간 길도 안전하게**=BMW의 ‘나이트비전’(2006년형 740i 모델 이상)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원거리 적외선 카메라가 300m 거리의 보행자와 동물 등의 물체 존재를 인식한다. 이 결과를 운전석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해줘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야간 길 운전시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사물을 나이트비전이라는 장치를 통해 확인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BMW는 차체에 내장된 센서로 주변의 광량을 스스로 인식, 하이빔을 작동시켜주는 ‘하이빔 어시스턴트’도 채택했다. 이는 운전자에서 야간 운전시 보다 멀리 시야를 확보해주는 대신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BMW의 5·6·7시리즈에 적용됐다.

◇**시동걸지 않고도 실내온도 조절**=렉서스의 ‘LS460’에는 적외선 체온 감지 센서가 있다. 뒷좌석 승객의 신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해 차량 내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승객이 이동할 때 센서는 이를 감지해 공기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폭스바겐의 ‘4존 클리마트로닉(4-Zone Climatronic)’ 시스템은 앞뒤 좌석과 좌우 시트 4곳에 탑승자가 에어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투아렉’과 ‘페이톤’ 모델에 적용됐으며, 습기 제거는 물론 내부 온도 설정 등이 모두 4좌석 개별적으로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승객을 편안하게**=아우디의 ‘태양 방향 감지센터’는 태양이 어느 쪽에서 비춰주는지를 감지해 해당 방향의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높여준다. 또 캐딜락의 ‘STS’는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가 제공된다.

포드가 3월 선보이는 ‘링컨 MKX’ 콘솔박스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칸막이가 있어 운전자 취향에 맞게 소품을 정리할 수 있다.

볼보 XC90의 ‘풋 라이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차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는 자동차 키에 부착된 ‘어프로치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차가 신호를 보내준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자동차 방향지시등 소리는 여느 차와 다르다. 묵직한 클래식 피아노 중저음에 템포도 한단계 낮춰 편안한 주행을 도와준다. 인피니티 ‘뉴 G35’는 운전자가 시트를 이동시킬 때마다 좌석에 맞게 미러와 스티어링 휠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렉서스-LS460

디젤승용차 ‘연비의 승부’

메르세데스 벤츠·아우디 등 디젤세단 올 10여종 출시

폭스바겐-골프2.0TDI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스타일과 안전성, 주행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디젤차량을 고르는 소비자들은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바로 경제성이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수입차시장에서도 디젤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지난해 15종에 달하는 디젤차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도 10여종의 디젤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차 브랜드들이 디젤세단 출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난해에만 총 4천338대의 디젤승용차가 팔려나갔다. 이는 지난 2005년보다 2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연비가 좋고 공해도 적은 디젤승용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입차 업계는 각각 ‘HDI’, ‘CDI’, ‘TDI’ 등 자사의 엔진 성능을 강조하며, 시장 공략에 한창이다. 하지만 각사의 디젤엔진의 작동방식은 고압으로 경유를 실린더에 분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차량들이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젤차의 연비는 가솔린 차에 비해 20~30%가 뛰어나다. 상당수 디젤차가 한번 주유로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입 디젤차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차는 폭스바겐의 ‘골프 2.0TDI’로, 1ℓ 당 15.7km를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시 20km가 넘는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다음이 푸조의 ‘407 2.0HDI’로, 연비는 ℓ 당 14.3km에 달한다. 폭스바겐의 ‘파사트2.0TDI’의 연비도 13.7km/ℓ로 뛰어나다. 다음이 벤츠 ‘E220CDI’로 12.5km/ℓ 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아우디‘A6 3 .0TDI’의 연비도 ℓ 당 12.1㎞로 높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벤츠-E220CDI